

1천번 선방 대중공양 발원 한 요리연구가 임지호씨

5년째 1백여 선방찾아 공양

틈틈이 양로원·고아원서도 솜씨 발휘

1천번의 선방 대중공양 발원을 세운 불자가 있어 화제다. 깨달음을 위해 수행 정진하는 수좌스님들에게 직접 만든 음식을 공양하겠다고 원을 세운 산채요리연구가 산당 임지호씨(45).

경북 안동에서 2대 독자로 태어나 세상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8세의 어린 나이에 가출을 감행했던 임씨는 자신 때문에 속을 태우며 남몰래 흘렸을 어머니의 '눈물 값'을 갚는다는 참회의 마음으로 5년 전 1천번 선방 대중공양을 발원했다. 1천번이면 1주일에 한 번씩 대중공양을 한다 해도 장장 20년이 족히 걸린다.

그때그때 구할 수 있는 재료와 먹는 사람의 성격, 기분에 따라 모양과 맛이 전혀 다른 음식을 만들어 '이미지요리 연구'가 되어 더 잘 알려진 임씨가 그동안 대중공양을 올린 곳은 등락사,

거듭한다. 전국 산과 들의 풀과 꽃은 물론 약초, 매미껍질 등 세상의 온갖 음식재료에 연육색, 솔잎가루, 쥐새취, 흑미, 검은깨, 주황색, 홍화가루 등 색색의 분말로 채색한 요리를 기와장이나 소 여물통 등에 담아 평소 먹던 음식에서는 느껴 볼 수 없는 무위자연(無爲自然)의 향취와 맛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래서 그의 음식을 맛본 사람들은 입안에서 살아 숨쉬는 탈속(脫俗)을 체험한다고 말한다.

임지호씨는 어릴 적부터 전국의 음식점에서 어깨너머로 요리를 익혔다. 80년대 중반에는 사우디아라비아 건설현장에서 주방장으로 2년째 근무하며 세 끼니를 책임진 적도 있다. 호텔 주방장을 거쳐 지금은 경기도 양평에서 자연음식전문점 '산당'을 운영하고 있다.

임씨는 선방 대중공양에 그치지 않고 고아원, 양로원을 찾아



음식보시를 하기도 한다. 19일 인사동 가나아트홀 앞에서 정신세계의 하모니를 '이미지 음식' 퍼포먼스를 통해 표현할 계획인 일씨.

'거짓과 욕심이 만든 음식은 사람의 몸과 마음을 맑게 할 수 있는 법이다'.

도필선 기자 (psdo@buddhopia.com)

조계종 삼장강사 10명 배출

승가대학원 첫 졸업식

조계종립 은혜사 승가대학원(원장 무비)이 7일 제1회 졸업식(원장 무비)이 7일 제1회 졸업식(원장 무비)을 거행하고 10명의 삼장강사(승각 법장 능허 반산 일귀 선행 현진 원징 지상 용학스님)를 배출했다. (권인인터뷰 4면)

이날 졸업식은 전통강택 계승과 현대에 맞는 강사 양성을 위해 지난 96년 10월 개원한 조계승가대학원이 첫 졸업생을 배출

했다는 점에서 교계의 큰 관심을 모았다. 경과보고, 졸업장 및 삼장강사 증서 수여, 밥어, 졸업생대표 인사용의 순으로 진행된 이날 졸업식에서 무비스님은 "강택전수는 부처님의 법통을 경학의 입장에서 이어가는 것"이라고 진제한 뒤 "종단에서 인정하는 공식 삼장강사가 되는 것은 사제간에 강택을 전수하는 것보다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윤호 기자

포항 '한민족 가족묘' 수탁

지장불교상조회

지장불교상조회(회장 경산, 백양사포교원)가 포항시 시립납골당 "한민족 가족묘"를 수탁했다. 납골당 납골묘의 공급확대를 위해 포항시가 추진한 이번 한민족 납골묘를 수탁한 지장불교상조회는 1일부터 포항시 구룡포지역 2천평에 3백기 안치를 목표로 1차로 분양중이다.

한민족가족묘는 납골의 최대문제인 결로현상을 없애기위해 석실과 외벽 구분된 왕릉형태의 분묘형납골묘로 돼 있으며 여러 곳에 분산돼 있다.

시립장터까지 위탁관리할 예정인 포항 지장불교상조회는 앞으로 포항시의 협조를 얻어 10만여평부지를 마련하겠다는 계획

도 세워두고 있다. 문의 (0562) 278-3990. 김원우 기자

조계종 본·말사

주지연수 잇달아

조계종 교육원(원장 일면)은 20~21일 용인 중소기업개발원 연수원에서 직할교구 용유사 신승사 월정사 봉선사 등 서늘·경기지역 본·말사 주지 연수교육을 실시하는 등 내달까지 지역별 본·말사 주지 연수교육을 잇달아 연다.

지방화 시대를 맞아 지역 본·말사 주지 스님과 본사 7직 국장 스님의 소양을 높이고 본말사 간의 유대강화를 위해 매년 실시되어 온 연수교육은 올해 충청지역 연수회를 시작으로 광역(도)별 연수를 처음 실시해 교육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역연대교육을 공고히 해 포교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직지사 동화사 은혜사 불국사 교운사=29~30일 직지사 △해인사 쌍계사 범어사 통도사=10월 6~7일 삼성산청연수소 △금강사 백암사 화엄사 송광사 대흥사 선운사=10월 21~22일 삼성생명 집체연수소 △관음사=10월 29~30일 관음사포교당. 김재경 기자

국보법 폐지촉구법회

18일 조계사 대응전

국가보안법폐지 불교연대(준)는 18일 조계사대응전에서 국가보안법폐지와 정치수배자 해제촉구법회를 개최한다.

이번 법회에서는 △국보법에 대한 문제제기 △국보법 폐지 불교계 결의문 채택 △실천지침 확정 △정치수배해제 촉구 결의 문등이 낭독된다.

한편 조계종 사회부, 실천불교 전국승가회등 9개 단체가 동참의사를 밝히고 있는 국가보안법폐지 불교연대준비위는 14일 전국 불교연대준비위에서 2차회의를 갖고 '국보법철폐 불교연대' 정식발족 및 향후계획안을 마련하게 된다. 김원우 기자

뉴스 & 뉴스

조계종 복지재단 15일 '포럼'

조계종 복지재단(대표이사 고산)은 15일 오후 2시 재단 강당에서 '종단 내 사회복지 위상강화 및 복지재단 역할 모색'을 주제로 불교복지포럼을 개최한다. 이날 포럼은 특히 내년도에 설립 5주년을 맞게되는 복지재단이 그동안의 재단역할과 조직구조에 대한 평가를 시도한다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이날 포럼에서는 김용철교수(중앙승가대)가 '종단내 포교관련 복지실태'를, 권경익씨(복지재단 자문위원)가 '불교사회복지 필요성과 복지재단의 방향'을 주제로 각각 발제에 나선다. 또 복지재단을 비롯해 포교연교육친 등의 종단 관계자들이 참여해 불교복지와 복지재단의 방향에 대해 토론을 벌인다. 한영우 기자

장례문화학과 신설신청

동국대(총장 송승구)는 국내 처음으로 불교적 전통에 의한 장묘제도의 개선과 장례문화의 개혁을 연구하는 '장례문화학과'를 불교대학원에 개설하기로 하고 교육부에 화과 신설을 신청했다. 이달말 교육부로부터 승인이 떨어지면 내년부터 정원 50명 규모로 장례문화학과를 운영할 계획이다.

장례문화학과에서는 불교학계에서부터 장례경영론 장묘제도론 등 장도관련분야 병원미생물학 병리학등 보건행정 의학분야의 과목을 개설하게 된다. 김지연 기자

광주군 군정백서 시정키로

경기도 광주군은 최근 민선자치 제1기 군정백서의 명예군수 위촉현황과 관련해 불교계에 소홀하게 됐다며 해당내용을 정정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광주군은 종교평화대책위원회에 보낸 지난달 21일자 공문에서 "군정백서의 명예군수 위촉현황 내용이 특정종교 편향적인 사항이 아니었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만큼 관련내용을 정정해 배포하겠다"고 밝혔다. 김재경 기자

부산대불련 '반딧불 학교'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부산지부가 29일~10월1일 양일간 동대생 생활과 학대에서 제3기 생태학교인 '반딧불 학교'를 개설한다.

새로운 환경운동의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는 이번 반딧불학교에서는 지역 시민단체 '작은 변화'를 소중히 하는 사람들의 모임의 김영수 목사가 '홀도 죽었다. 불교기도 죽었다. 인간의 세계는...'을 주제로 강의가 있을 예정이다. 또 '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 '새로운 문명전환'로서의 교육혁명'을 주제로한 한국불교환경교육원 유정길 사무국장등이 대대 송환식 교수의 강의를 진행한다. 도필선 기자

사부대중 수련회

10월16·17일 수원용주사서

사부대중공동체 창립준비위원회(공동준비위원장 지홍)는 10월 16일부터 17일까지 수원 용주사에서 사부대중 전체수련회를 개최키로 했다. '사부대중의 수행환경과 공동체 수행'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수련회로 사부대중공동체 운동에 동의하는 모든불자가 참여할 수 있는 수련회로 도법스님(실상사주지) 전제성교수(한국바알리성전협회)가 사부대중의 수행환경과 공동체 수행에 대하여 발표한다. 김원우 기자

동대병원 특위 구성안

조계종 증회안건 추가

조계종 중앙총회(의장 법등)는 8일 의장단 상임위원장 및 총무분과위원회 연석회의를 열고 동국대학교 불교병원 건립 타당성 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의 구성의 건을 142회 임시총회 안건으로 추가하기로 했다. 연석회의에서는 또 조계사 재정 사태 파와 및 사법처리 진상 조사 특별 구성의 건은 재정분과위에 이관키로 했다. 정성운 기자



△태고종 초청으로 이뤄진 조계·태고종 집행부 회동에서 양종단 스님들은 수습위원회를 구성, 합의점을 도출하기로 했다.

분규해결 위원회 구성키로

조-태 집행부 회동

조계종과 태고종 두 총무원의 집행부는 7일 태고종 총무원장실에서 만나 조계-태고 분규 해결 대화에 본격 나서기로 했다. 태고종총무원의 초청으로 이뤄진 이날 만남에는 태고종에서 총무원장 인곡스님, 총무부장 지상, 구할부장 백운, 사회부장 호명, 조계종에서는 총무부장 인택, 기획실장 만성, 재무부장 자승, 문

화부장 일철, 사회부장 양산, 호법부장 종교, 사서실장 양산스님이 참석했다. 인곡스님은 "금년 내로 분규를 끝내자"며 "태고종은 선암사를 놓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택스님은 "의견·일주 총무원장 당시 협상안까지 나왔으나 좌절된 적이 있다"며 "양 종단이 수습위원회를 구성해 합의점을 도출하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곡스님은 "우리로 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답했다. 정성운 기자

새천년 첫째 '불교달력' 출시

부처님 오신날 5월11일

새천년의 부처님오신날은? 5월 11일(목요일). 불교의 각 명절과 의례의식일을 음력과 함께 볼 수 있는 불기 2544년 불교달력이 대거 선보이고 있다.

새로운 천년의 첫 해, 2000년도 불교달력은 사계절의 산사, 연꽃, 성보, 등자승, 화남아시아 사원, 사군자, 달마도 등 다양하다.

19종의 달력을 내놓은 감로기획(02-723-4306)은 천진불상을 되새길 수 있는 '동자승의 세계', 부처님 사리와 가사 그리고 국·보물이 산재한 '적멸보궁'과 '기도도량' 등이 화남아시아 주요 사원을 찍은 '세계의 불교사원' 김용대 화백의 달마화전을 엮은 '달마도' 등 3종이다.

조계종 출판부(02-720-6019)는 '산사의 향기'와 '산사의 멋' 그리고 '우리로 부처님같이' 등 3종. '산사의 향기'는 수정한지 위에 산사의 사계 풍광을 그린 작품을, '산사의 멋'은 사진작가 김성철씨의



탁월한 색감이 담긴 사진을 모았고 또 서산 마애삼존불등 대표적인 석불들이 실린 '우리로 부처님같이'에는 중앙종무기과의 연락처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다.

가야기획(02-732-2461)에서 선보인 달력은 용을 주제로 한 '용'과 라오스 불교사원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부처님의 성지-라오스' 등 총 11종. 월간 불광과 불광문화사업부(02-420-3200)가 내놓은 달력은 운명속씨의 작품 '연꽃', '세계의 불교사원' 김용대 화백의 달마화전을 엮은 '달마도' 등 3종이다. 김준근·오종욱 기자

창사 20주년 기념

제1회 민족사 새 글 공모전

오는 2000년, 창립 20주년을 맞는 민족사는 새 글 공모전을 통해 창신하고 역량있는 필자를 발굴하고자 합니다. 이에 새로운 내용과 형식으로 부처님 말씀을 전할 창의력 있는 원고를 모집합니다. 불자의 자긍심을 드높이고 불교출판의 활기를 불어넣을 재능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 1. 모집분야
- 불교대중서로서 기존에 발표된 적이 없는 새로운 주제와 형식의 글
- 불교입문서, 교리해설, 산문집, 불교문화예술, 사찰기행 등(단, 학술서, 시·소설류는 제외)
2. 자격 및 방법
- 자격 : 창조적인 글쓰기에 자신있는 모든 분
- 방법 : 집필원고의 개요(A4 1장 내외)
집필원고(원고지 800매 이상)
간단한 프로필 및 주소, 전화번호, 본명 명시
우편접수시 곁봉에 '공모작품' 명시
3. 일정 및 수상내역
- 응모기간 : 2000년 3월 31일까지(소인유효)
- 수상표표 : 2000년 5월 2째주 불교계 신문(당선자 개별통보)
- 수상내역 : 대 상 1편 300만원
우수상 2편 100만원

\* 응모작품은 반환의 책임을 지지 않으며, 수상작의 우선 출판권은 민족사가 소유합니다. (또한 출판할 경우 저자와의 계약을 통해 별도의 인세가 지급됩니다)

민족사 민족사는 좋은 책으로 좋은 세상을 꿈꾸는 곳입니다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208-1 금강빌딩 3층 전화) 732-2403-4, 722-7679 팩스) 739-7675

"향기"로 아픔을 날린다!!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혈(血)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는 1997년 제15회 동경국제박람회 출품하여 우수상품으로 선정. 향요법을 통한 여성 건강 증진 효과가 또 다시 입증되었고, 현재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등 세계8개국에 수출됨으로써 여성 고민의 근본적인 해결책임이 밝혀졌습니다.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 고민은 끝!

이 향비를 신린혈(배꼽)에 착용하면 방향약성식품의 성분이 신린혈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계통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낸다. 향비는 자연향인 피넛치기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은 생식시켜 음식물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합니다. 태아가 임파의 맛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린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로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 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기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뜸의 효능, 약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 생리통·기미 33세년 가정주부입니다. 저의 경우는 약15년동안 허리진통으로 늘 고생해왔고 특히 그 진통으로 인해 저녁엔 깊은 잠이 들지 못하고 깨어있어야만 했습니다. 정형외과, 산부인과, 지압·교정등 치료방법을 해보았지만 진통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니 다. 그러던중 우연히 향비를 알게 되었고 향비를 착용한 5일째부터 신기하게 단 한번의 진통없이 아침까지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향비의 착용이라는 것은 생각할때 피곤해서 그런가 했는데 며칠을 두고 관찰해 보니 향비사용으로 저의 생리통이 심하고 색은 아주 검고 양이 패드에 묻히는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향비를 사용한 그달에 생리의 결과는 놀랍게도 생리통이 없어졌으며 색도 아주 맑고 깨끗해 짜증이 나지 않았고 물론 허리의 진통도 감소되었고 양이 많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좋은 향비를 개발해 널리 보급한 고려불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군포시 금정동 장영희)

- 향미되는 증상에 (○) 의심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5. 기미가 있다.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8. 생리주기가 정상적이지 않다.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10. 생리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13. 가슴이 답답하고 옆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16. 목이 바짝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17. 변비가 심한 편이다.
18. 담노나 감성신으로 고통을 당한다.

고려물산·한국향방연구소 080-200-4545, 02)755-9821